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명박 정권 들어 호남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부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유독 아프게 와 닿는 말이러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닐까.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고,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왜 속앓이를 해야 하는가. 또 그들의 주장이 과연 보편타당한 것인가.

무엇을 잃어버린 10년인지, 김영삼 정권처럼 나라를 부도로 몰아넣은 것인지, 할 말이 많은데도 우리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경상도 쪽, 보수언론들, 그리고 오랜 시절 기록권을 누렸던 소위 '가진 자'들은 이를 두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잃어내고, 대구 쪽은 한술 더 떠 '잃어버린 15년'이라고까지 떠들어댄다. 김영삼 정권 5년이 '부산정권'이지 '영남정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5·18이 민중 반란이라니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빼앗겼다'는 우회적 표현일 뿐이다. 주인 행세를 하다 한 쪽으로 비켜 나 앉아 눈치를 봐야 했

으니 빼앗겼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정권은 언제까지나 그네들 몫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남은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쳤으니 무릇 40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호남인들은 그 오랜 세월 소외와 후대점으로 그렇게 낙후됐어도 잃

잃어야 할 세월은 또 얼마인가

어버린'을 말하지 않았다. DJ가 대통령이 됐어도 '잃어버린'을 꺼내지 않았다. 물론 잃어 버려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DJ정부 시절 역차별이 적지 않았지만 '대통령' 자체로서 위안을 삼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삼성자동차 공장을 주주 앉혔어도 우리는 DJ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산정권'임을 단언시켰다. 그 10년 간 호남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한참 생각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그들은 '막가보' 표현조차 서슴

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좌파정부'라 규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좌파 친북성향의 정부'라고 매도한다. 그렇다면 90%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을 만든 호남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5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 반란'이라고 매도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 용서와 화해를 하자는 국가기관 수장의 의식이 이 정도인데 이 정권은 왜 모른 채 하는가.

식이다. 이번 연평도 피격사건도 그에 다름이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군 무기체계와 대응 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게 지난 10여년 간의 해이해진 군 기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좌우 줄세우기'는 밥그릇 탓

그렇다면 집권 3년 가까이 된 이 정권은 과연 제대로 한 게 있는가. 단편적인 예이지만 대북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평화변영정책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보다 낮은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노 정부 때인 지난 2006~2008년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8.0%를 기록한 반면 현 정부의 2009~2011년 증가율이 5.6%에 불과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 일변도로 나간 만큼 철통 방위태세는 그 전제였다. 그럼에도 책임을 '잃어버린 10년'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좌우를 갈라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와 같다. 햇볕정책은 곧 친북성향으로 같은한다.

이제 호남사람들은 평가 선택을 해야 한다.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야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2년 뒤 대선에서 여당인데, 야당이든 될 만한 인사라면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래야 속앓이라도 면하지 않겠는가.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기고



홍진태

한참 오래됐지만 아직도 젊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 방송사의 '양심병장 고'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양심적인 운전자에게 냉각고를 선물함으로써 올바른 양심을 사회의 귀감이 되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제1호 양심병장고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건널목에서, 그것도 그냥 지나쳐도 필법한 새벽녘에 정지선을 지킨 어느 장애인 부부에게 돌아왔다. 그 장애인부부는 정말 태연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도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석처럼 아름다운 두 부부의 언행에 시청자들은 모두 감동했었다.

위한 '딱지와의 전쟁'이다. 지식성과 경제성을 지닌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 시민단체 등 연인원 6만여 명이 참여해 전단지 300여만 매를 수거하는 등 정비와 단속을 병행했다.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성매매업주, 인쇄업자 등 48명을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했다.

그 결과, 광주 시내 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바뀌어 가는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또, 법무부의 지자체 범죄서 확립 우수사례로 선정돼 타시도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민주·인권·평화도시에 걸맞은

'광주정신'의 출발점은 작은 일에서부터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에 내놓아도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레데르를 당당히 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을 바로 그 장애인부부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다. 우리 광주는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정의로운 도시다. 이순신 장군에게서도 '악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無國家)'라 이르렀다. 역사가 증명하는 호남의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작은 일부터 개선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민선 5기를 맞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난 7월부터 음란성 불법 전단을 뿌리뽑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다.

높은 교통사고율은 교통질서에 무감각한 시민의식, 잘못된 운전습관,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보행문화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혹자는 '캠페인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주 시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가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주인은 광주 시민이다. 광주 시민의 소양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광주 시민의 품격도 달라진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정신'에서 나온다. 행정은 민주·인권·평화에 뿌리를 둔 시민정신을 지원하고 시민의 힘으로 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작은 일도 반드시 지키는 것, 광주정신의 출발점으로 삼자.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돈 많이 들고 산모에도 안 좋은 제왕절개를 너무 높아

우리나라 산부인과 10곳 가운데 3곳이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했고 일부 병원엔 제왕절개율이 82%에 달했다는 실태조사 자료를 봤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다시 제왕절개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도 안 좋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대한 환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후 3~4일 입원하는 것이 보통이지

만 제왕절개를 하면 후유증을 감안해 7~10일 입원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제왕절개를 지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학 수준이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왕절개가 유난히 많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기고



박경화

지난해 온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단어 중 하나가 신종 인플루엔자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인플루엔자라는 병에 대하여 경험이나 매체를 통해 알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1981년 6월 5일 미국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LA에 사는 남성 동성애자 5명이 희귀한 폐질환인 뉴모시티스 카리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 중 3명이 면역기능 저하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의 젊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언론은 동성애자 관련 면역 결핍증(GRID)이라

게게 지내던 불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불이네를 냉대하고 이사를 종용하기도 한다. 세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이기주의로 인해 겪는 힘든 생활로 당연히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들은 TV를 시청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엄마는 딸 불이에게 매일 아침 말한다. "일, 칫솔과 손톱깎이는 남의 것을 쓰지 않는다. 빌려 주지도 않는다." "이, 피가 흐르면 엄마가 준 수건으로 닦고 버리지 말고 비닐봉지에 싸서 집으로 가져온다." "삼, 넘어져서 피가 나면 다른 사람의

AIDS에 대한 잘못된 편견 버려야

고 이름 붙였다.

1982년 이 증상은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란 이름을 얻었고, 1983년 HIV(인간면역부전 바이러스)가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1985년 한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보고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과 함께 편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감염자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만들었다. 나와 관계없는 성격으로 문란한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이라는 낙관적 편견과 거짓 안전감을 갖게 한 것이다.

HIV 감염증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다. HIV 감염자는 HIV를 몸에 가지고 있지만 걸으므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이며, 에이즈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력이 파괴되면서 생긴 합병증을 말한다.

1987년 에이즈 최초 치료제(지도부딘)가 등장하였고 이후 많은 치료 약제가 개발되면서 더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당초병처럼 조절하며 살아가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현재는 3~4종의 에이즈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콕테일 요법으로 면역결핍 증상을 억제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전문가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불이'와 미혼모,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어찌까지 이웃사촌으로 정

도움을 받지 않는다." 불이가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외우고 다니는 생활수칙이지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에이즈는 상처 부위가 아니라면 피가 직접 닿는다고 해서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 성접촉, 혈액, 주사기, 그리고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HIV 감염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경제활동으로 꼽는다. 감염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몸매 이상이 있으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HIV 감염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게 한다. 이런 비판은 자칫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

1985년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름은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선입견과 무지는 남아 있다. 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다.

신종플루와 에이즈, 두 질환을 대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태생적인 한계일 줄 모르겠다. 그렇지만, 질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면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어 갔다.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시설

지역 예산 안보·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어야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4대강사업 예산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앞선 데 달친 형 사건까지 터져 내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회가 과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당의 명예를 걸고 오는 6월까지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 만약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정부와 국회상임위에서 어렵게 점들의 처리와 연계해 흥정대상으로 삼거나 누락시키는 일을 재연한다면 지역민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연도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서 지역 주요예산이 제외되는 여허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미 국회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된 F1 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 하계U대회 지원사업 등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역의 미래 청사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지역 주요사업 예산도 졸속처리돼서는 안 된다. 특히 여수엑스포 SOC 사업 예산은 시기적으로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회가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중시한다면 정치적 현안들을 앞세워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야 안 된다. 특히 지역예산을 다른 정치쟁점들의 처리와 연계해 흥정대상으로 삼거나 누락시키는 일을 재연한다면 지역민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리 폐사, 구제역 우려까지 대책 시급하다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폐사 집단 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지 못하면 농가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리 산란율과 부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육용 오리의 집단 폐사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다니 역학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 폐사 원인이 법정 전염을 받는 등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에서 사육 중인 오리 629만 마리 중 40%인 251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오리 폐사 3개월이 지나도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농가들은 이미치 실추와 소비 감소 등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나주 등 전남지역 15곳 오리사육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집단 폐사원인이 AIE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집단 폐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지 못하면 농가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리 산란율과 부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육용 오리의 집단 폐사율이 30%를 육박하고 있다니 역학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 폐사 원인이 법정 전염을 받는 등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안동지역에서 돼지에 이어 한우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 농가로서는 앞선 데 달친 격이다. 구제역은 전염 경로가 다양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 긴장의 끈을 늦추서는 안 된다. 당국은 구제역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동지역의 구제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리에 돼지, 소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無等鼓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최근 발표한 책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에서 우주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으로서 'M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M이론에 대해 "우주에 관한 완전한 이론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론이긴 하지만 전세계 이론물리학계의 거목인 호킹 박사의 주장인데다, 현실적으로도 이곳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통일이론"이라며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인간이, 우리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해 이해에 이치처럼 바짝 접근했다는 사실은 위대한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M이론은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10개의 공간차원과 1개의 시간차원으로 이뤄진 11차원의 시공간'이라고 설명하는, 일종의 다중우주(Multiverse)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존재하는 우주는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은 물론, 상식을 벗어난

그 어떤 '기이함' 세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도, M이론의 눈을 통해보면 우주에 무한히 존재하는 다양한 세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있는 스티브 잡스가 또 다른 우주에서 불우한 실업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관심을 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연평도를 폭격하는 등 갈수록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한국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습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심본 이해하지만,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세상은 우주 어디에 있는 걸까.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또다른 세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사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